

「쫄레꽃」, 전망 없는 현실에 대한 초월적 대응 방식

이 정 옥*

- 1. 머리말
- 2. 도덕적으로 숭고한 여성과 타락한 물신주의적 남성의 대립
- 3. 타락한 현실의 타락한 가치에 대한 낭만적 초월의식
- 4. 도덕적 우월감, 전망 없는 현실 살아가기의 또 다른 방식
- 5. 맺음말

초록

본 논문은 연애소설이 대중 독자들에게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학 장르인 데도 불구하고 리얼리즘 소설과 다른 방식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문학 연구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연애소설이 그 동안 문학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원인은 바로 현실에 대해 치열한 대응 방식이 아닌 의사 초월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현실 대응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소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리얼리즘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경직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잣대로 연애소설을 분석할 경우 '통속적이다'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쫄레꽃」은 타락한 가치가 통용되는 일제 하 근대 사회에서 사랑이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오로지 현실을 초월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인물의 도덕적 미덕을 통하여 권력과 돈과 명예를 기반으로 삼아 저급한 성적 욕망과 타락한 물신주의를 추종하는 남성을 비판하고 있다. 여성의 도덕적 숭고함은 곧 정신적 가치인 사랑마저도 돈의 교환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자본주의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의 척도가 되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의 또 다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은 연애소설을 읽음으로 해서 일상 생활에서는 배출구를 찾을 수 없는 억눌

* 서강대 강사

린 감정을 분출할 수 있고, 나아가 구속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상에 접근해 있는 듯한 초월적인 위안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연애소설은 현실에서 왜소해진 대중 독자들을 위로하거나 도덕적으로 보상하여 주고 현실에서 소외된 독자들의 소외감이나 불안의식을 위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1. 머리말

대중 독자들이 즐겨 읽는 문학 장르는 단연 연애소설이다. 인간의 삶에서 연애와 결혼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이 연애담을 담아내는 연애소설에 집중되어 있다. 비록 연애소설이 아닐지라도 어느 시대의 소설이나 다양하게 전개되는 애정 갈등 또는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의 서사체인 연애소설은 사적 영역에 갇혀 있던 여성이 사회 제 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연애담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 연애의 바닥에는 사랑과 성적 욕망이 교차하고 있다. 사랑이 정신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은 육체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대부분 사랑과 성적 욕망이 동시에 수반되지만, 때로 사랑이 배제된 성적 욕망이 부각되기도 한다. 근대 이후 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랑이 없는 성적 욕망은 여성을 돈으로 교환하는 탐욕스러운 물신주의로 드러난다. 대개 여성은 사랑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실은 진정한 가치의 실현을 방해한다.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실이란 돈과 명예나 권위 등으로서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드러나는 물신적 가치들이다.

이렇게 연애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은 물론 개인이 사회와 맺는 관계 형성 방식이 집약되어 있다. 한 개인의 연애방식은 사적이면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조건지우는 사회 상황과 당대에 통용되는 의식구조를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개인의 연애담을 통해서 개

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사회 상황은 물론 당대 독자들의 정서를 읽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소설을 남녀 간의 애정의 우여곡절이 이야기의 주된 골격을 이루는 소설¹⁾로 한정할 수 없다. 연애소설이란 남녀 간의 연애의 우여곡절이 서사의 중핵을 이루되, 이 서사를 통해 당대에 통용되는 연애에 관한 담론화 방식을 담고 있는 문학이다. 우리가 연애소설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고에서 살펴 볼 김말봉의 「절레꽃」은 연애소설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다.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될 당시 신문 판매 부수를 두 배 이상 올려 놓을 정도로 대중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뿐만 아니라 연재 직후 단행본으로 발간될 당시 인쇄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용지난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거듭하여 찍을 정도로 인기의 상한가를 누렸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애소설의 전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절레꽃」은 「장한몽」 이후 연애소설의 특성으로 굳어진 ‘돈’과 ‘사랑’ 사이의 갈등이 증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한몽」이 ‘돈’과 ‘사랑’의 선택이라는 연애 갈등에만 국한함으로써 당대의 현실을 탈각시켰던²⁾ 반면 「절레꽃」은 1930년대의 현실 상황은 물론 당대 독자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즉 세계 공황과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아래 경제적 위기에 처한 1930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독자 대부분이 가졌을 법한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가 반영되어 있다. 감정구조는 한 시기의 대중들의 사고화된 감정을 현재적인 체험으로 도출한 것으로서, 대중 독자들

1) 한용한, 『소설학 사전』(고려원, 1992), p.307~308.

2) 「장한몽」에서 돈과 사랑의 선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인물 간의 갈등 구조는 현실과 무관하게 연애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리얼리티가 떨어진다. 즉 심순애가 김중배와 결혼한 이후에도 순결을 지켰다는 사실을 과장되게 강조하는가 하면, 이수일과 심순애가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고 행복한 결합을 맺도록 하기 위해 김중배를 무리하게 파산시킨다. 또한 불행한 과거의 우여곡절을 한바탕의 일장춘몽으로 돌림으로써 김중배를 택한 심순애의 과오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합은 오로지 연애 갈등에만 초점을 맞춘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의 감정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영하는 소설은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³⁾ 「쫄레꽃」이 독자들에게 그토록 인기를 누렸고 호응을 받았던 것도 소설 속의 상황이 당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반영하였으며 그것이 또한 독자들의 감정구조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곧 당시의 사회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그 동안 연애소설은 리얼리즘에 충실하지 못했고 모더니즘 문학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쫄레꽃」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풍토에서 예외가 아니다. 임화가 ‘상업성과 통속성의 길을 확립한 본격적인 통속소설’이라고 평가⁴⁾한 이래 통속성을 밝히는 연구⁵⁾의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의 출발점은 연애소설에 대해서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이와 같은 경직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연애소설의 문학적 특성을 밝히는 데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애소설의 가장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는 「쫄레꽃」에 나타난 연애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애소설 나름의 현실 대응 방식과 여기에 반영된 당대 독자들의 감정구조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연애소설에 나타나는 연애 과정에 스며들어 있는 당대 독자들의 감정구조에 대한 고찰은 그 동안 연애소설을 단지 현실 인식과 무관하게 흥미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보았던 기존의 관점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애소설이 대중소설의 하위 장르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분석은 대중소설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맞물리게 될 것이다.

3) R. Williams, 이일환 역, 『이념과 문학』(문학과지성사, 1993), p.166.

4) 임화, 「통속소설론」, 『문학의 논리』(학예사, 1940), p.387~410.

5) 안창수, 「쫄레꽃에 나타난 삶의 양상과 그 한계」(『영남어문학』, 1985.12).

유문선, 「애정갈등과 통속소설의 창작방법」(『문학정신』, 1990.6).

서영체,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민족문학사연구』, 1993).

배기정, 「쫄레꽃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국어교육연구』, 1994).

2. 도덕적으로 숭고한 여성과 타락한 물신주의적 남성의 대립

남녀간의 연애 갈등을 주된 재제로 하는 연애소설에서 인물들은 반드시 애정의 삼각관계(love triangle)로 구성된다. 12세기 유럽의 기사문학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연애소설의 기본 구조로 굳어진 애정의 삼각관계는 개인의 연애 방식이 개인적인 의지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사회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⁶⁾ 이 삼각관계의 모형은 당대 사회의 축약도로서 그 구체적인 구성 내용들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편이나 저편이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연애의 삼각관계는 멜로드라마적 플롯에 기반한 것으로서 연애소설의 상투적인 공식으로 굳어진지 오래다. 특히 근대 이후 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삼각관계는 여성이 사랑을 택할 것인가, 또는 돈을 택할 것인가의 플롯으로 요약된다.

'혼사 장애' 모티프를 근간으로 하는 「쥘레꽃」 역시 도덕적 여성을 둘러싸고 순정을 지닌 남성인물과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부자인 또 다른 남성인물 간의 삼각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삼각관계는 단지 상황에 의한 관계의 의미만에 불과할 뿐, 여성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사랑을 선택하고 있다. 초지일관 사랑만을 추구하는 정순의 선택은 타락한 현실 사회에서는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고집하는 숭고한 여성의 삶은 역설적으로 타락한 남성이 살아가는 방식을 드러내주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수-안정순-조만호의 삼각관계는 「쥘레꽃」에 나타나는 복잡한 삼각관계들의 근간을 이룬다. 경성제대 이수과에 다니는 이민수와 사랑에 빠져 있는 안정순이 돈을 벌기 위해 조만호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탐욕스러운 부자 남성의 성적 유혹에 노출된다. 조만호는 돈과

6) Marie H. Faillie, "Love Triangle",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Jean Charles Seigneuret (ed) (Greenwood Press, 1988), p.803.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 질서를 상징하며 여성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도덕적 악의 약호이다. 반면 정순은 남성의 횡포로부터 지켜져야 할 여성이 된다.

조만호는 타락한 가치를 지닌 근대적 인물의 전형이다. ○○은행의 두 취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축적하고 경제력을 거머쥐었고, 병든 아내를 두고 성적 욕망을 탐하는 인물이며, 여성을 돈으로 교환하는 상품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속물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조만호는 대중 로맨스(popular romance)에서 가부장제의 이득을 누리는 전형적인 남근적 영웅(phallic hero)과 일치한다. 이 남근적 영웅은 도덕적으로 여성인물을 억압할 뿐 아니라 성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인물이다.⁷⁾ 정순의 순결함을 탐내는 조만호의 비도덕적 속물성은 <어린 양>을 노리는 <이리떼>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 자존심을 꺾고 가정교사 노릇을 계속해야 하는 정순에게 조만호는 분명 경제적 안정과 신분 상승 보장을 무기로 성적 탐욕을 드러내는 유혹자에 해당한다. 선/악, 순정/성적 욕망, 사랑/돈의 의미론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조만호의 성적 욕망이 정순에게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만호가 정순을 향한 성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서사가 끝날 때까지 정순이 조만호의 탐욕에 희생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돈과 사랑에 바탕을 둔 민수-정순-조만호의 삼각관계는 외형상 「장한몽」에서 이수일-심순애-김중배의 삼각관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김중배의 돈을 선택한 후 이수일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불행하게 살았던 심순애와 달리 정순은 조만호의 돈을 탐하거나 민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순애가 돈의 유혹에 흔들리다가 사랑에

7) Catherine Belsey, *Desire : Love Stories in Western Culture*, (Blackwell : Oxford, 1994), pp.24~28.

굴복한 비도덕적 인물이라면 정순은 처음부터 오로지 사랑만을 추구하는 도덕적으로 숭고한 인물이다.

조경애와 조경구의 개입은 정순의 도덕적 순결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 정순이가 비록 사랑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할 지라도 오해의 상황이 거듭됨에 따라 돈의 위력 앞에 초라해지는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정순은 이 돈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사랑을 추구하는 순결한 여성으로 남게 되므로 오해의 부차 플롯은 돈의 유혹에 굴하지 않는 정순의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주는 효과를 지닌다. 경애-민수-정순, 경구-정순-민수의 이중의 삼각관계가 표면상 청춘 남녀의 자유 연애로 드러나지만, 그 배면에는 역시 돈의 논리가 깔려 있다. 민수-정순-조만호의 삼각관계에서 사랑의 선택은 돈과 사랑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직접적인 갈등과 무관한 것이었다면, 경애-민수-정순, 경구-정순-민수의 삼각관계는 돈과 사랑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 갈등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 선택 갈등 역시 돈과 사랑을 양 저울에 놓고 저울질하는 심순애와 같은 양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민수가 돈 때문에 경애를 택하고 있다'는 정순의 오해와 역시 '돈 때문에 정순이 경구에게 접근한다'는 민수의 오해는 모두가 돈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상황논리에 이끌린 것일 뿐 인물 간의 직접적인 대립은 없다. 정순이가 시련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민수가 가난하기 때문에 민수를 도우려다가 생긴 오해에 있지만, 그 뿌리는 경애와 경구가 돈 많은 조만호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에서 파생된 것이다. 즉 경애와 민수가 가까워지자 정순은 '돈 많은 경애와 결혼하는 것이 민수가 행복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민수를 포기하였고, 경애를 통하여 경구가 정순에게 청혼한 사실을 들은 민수는 역으로 정순을 오해하게 되었다. 이들의 복잡한 관계는 민수가 경애를 구해 주는 우연적인 사건이 개입되면서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고, 오해가 거듭될수록 정순과 민수의 결합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면서 돈의 논리에 휘말린 청춘 남녀의 가련한 드라마가 펼쳐

진다.

한편 옥란과 조만호의 관계는 정순와 조만호의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 정순이 오로지 민수와의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도덕적 인물으로 남지만, 옥란은 사랑과 돈을 동시에 추구하려다 둘 다로부터 버림받게 됨으로써 비참하게 된 비도덕적 인물로 전락한다. 옥란은 최근호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조만호를 선택하지만 결국에는 둘 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한다. 옥란이 조만호의 돈에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타락한 여성인 반면, 정순은 끝까지 돈과 무관한 순결한 정신을 지닌 인물이다. 옥란은 조만호가 가난으로부터 구제받고 사생아 아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제공해 줄 능력이 있음을 알고 접근한다. 그러나 조만호는 오로지 성욕만을 충족하는 타락한 욕망의 소유자이다. 그는 여성이 가질 수 없는 경제력과 권력 등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남성으로서 힘없고 무기력한 여성을 힘으로 농락하는 유혹자이다. 이런 유혹자의 눈에 비친 여성이란 돈으로 성을 사는 상품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돈으로 여성을 사고 돈을 투자한 만큼 여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즐기는 전형적인 속물이다.⁸⁾ 조만호는 타락한 배금주의자로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병리적인 물질주의에 젖어 있다. 다른 한편 조만호는 침모 박씨의 음모에 속아 밤마다 침모의 딸 영자를 정순인 줄 알고 성적 관계를 맺어 오면서도 정순을 손에 넣었다고 흡족해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아둔한 인물이다.

어리석은 조만호의 성적 탐욕은 옥란을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난다. 조만호에게 버림받은 옥란이가 조만호의 침실로 숨어들어가 그와 정사를 벌이고 있는 여자를 살해함으로써 영자의 정체가 드러난다. 조만호의 타락적 진상이 밝혀지고 그 동안 정순으로 오인되어 숨겨져 있던 영자의 정체(침모 박씨의 딸)가 밝혀짐에 따라 정순을 둘러싼 모든 오해 역시

8) Jane Miller, *Seductions: Studies in Reading and Culture*, (Vorago Press: London, 1990), p.35.

풀어진다. 정순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어짐에 따라 정순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조만호의 돈에 이끌리어 있음이 밝혀진다.

돈의 교환가치에 지배를 받는 타락한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의 숭고한 도덕적 미덕은 돈을 담보로 여성의 순결을 노리는 남성들의 저급한 성적 욕망과 물질 숭배를 비판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연애소설에서 '사랑이나 돈이냐'의 선택 갈등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더 물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역설적으로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현실을 물질과 정신으로 양분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근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물질과 정신적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연속선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선택 갈등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타락한 현실의 타락한 가치에 대한 낭만적 초월의식

「절레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가난-선-순정과 물질-부-악-탐욕이라는 이원적 대립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대립적 행동과 도덕적 추상성은 정신=가난=선=순정, 물질=부=악=탐욕이라는 공식을 형성한다. 전자에 대한 긍정과 후자에 대한 부정의 사회 제도에 대한 저항감을 통제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순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⁹⁾ 대부분 힘이나 권력 면에서 약자인 여성이 힘있고 돈 많은 강자인 남성들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함으로써 여성은 타락한 남성들로부터 지켜져야 할 최후의 보루로 그려진다. 연애소설에서 탐욕적 남성의 비도덕성으로

9) A. Brooker, "An Approach to Melodramatic Fiction: Goodness and Energy in the Novels of Dickens, Collins and Reade", Genre, Vol.11. No.1. (Spring, 1978) p.366.

인하여 여성의 순결함이 더욱 고결하게 빛나도록 만드는 결말로 귀결되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정순이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적 인물로 남아 있지만 물질의 논리가 지배하는 타락한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돈에 대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정신-가난-선-순정의 선상에 있는 정순이 비록 도덕적 숭고함을 지닐지라도 순간순간 궁핍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열등감을 내비치고 아울러 물질-부-악-탐욕의 선상에 속하는 부르주아 세계에 대한 동경을 보이고 있다.

연일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실망과 탄식을 안은 채 이날도 불덩어리 가튼 해가 이글이글 대지를 내리 쪼이기 시작하였다. 흑군흑군 발사열을 뿜겨내는 고층 건물 아프로 지내가는 사람들의 눈들은 붉게 상기되고 타액이 말은 입술들은 재비츠로 타드러가는 오후 두시! (...중략...) 시장한 것보다도 타는 듯이 말려오는 목을 적시자면 이 길로 바로 집으로 도라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의 핸드백 속에 찻다라케 업드려있는 동전 일곱에서 전차 갑을 제하고 나면? 아아! 정순은 가늘게 한숨을 삼키고 방금 땀이 배넛는 깃고대를 손으로 만지는 것이다.(211년)¹⁰⁾

<물을 애타게 갈구하는 목마름>으로 비유되는 가난은 정순이가 처해 있는 현실적 기반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를 암시해준다. <실망과 탄식>에 찬 심리상태는 비를 기다리지만 충족되지 않고, 더구나 갈증을 해결할 만한 돈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극빈한 상태이다. 비록 며칠 후에 비가 와서 갈증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사는 현실적 공간은 <지붕이 썩을 대로 썩어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부엌에 흥건하게 물이 고이는 고통스러운 곳이다.

방금 고무 뽀뽀로 주룩주룩 정원나무에다 물을 뿜고 잇는 상노 아이가 오부인을 힐긋보자 뽀뽀를 내려 뚝코 허리를 굽실한다. 알맞게 넓은 정원에는

10) 텍스트는 『원본신문연재소설전집』 제2권(깊은샘, 1987)에 실린 것으로 한다.

드문드문 괴석이 노혀진 사이로 철죽과 석죽 반송들이 함초롬 물방울에 저저 잇는 것이 위선 더위에 시달린 정순의 시선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213면)

이와 대조적으로 조만호의 저택은 부르주아적 풍요의 세계이다. 재력과 권력을 누리는 조만호의 집은 가난한 자들이 가뭄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대는> 풍요로운 공간이다. 가난한 정순에게 넓은 정원과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을 갖춘 호화 저택은 충분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정순은 좋은 거울, 전나무 테이블, 등의자, 양복장까지 갖추어진 가정교사의 방에서 <전설에 나오는 공주처럼 하루 동안에 달라진 자기 생활>을 신기한 듯 바라보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는 <스르르 구름같이 몸에 감기운 고운 옷감들에 강렬한 유희>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부러움의 이면에는 가지지 못한 자의 열등감이 깔려 있다. 조만호 부인의 호시탐탐 감시하는 시선을 느낄 때마다 <하루 세끼씩 먹는 밥과 그리고 오십원의 현금>에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다는 <자조의 쓴 웃음>을 짓는가 하면, <시장에 팔려온 송아지처럼 선혈이 흐르는 심장을 부둥켜 안은 채 하루하루를 참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기도 한다. <길들인 로봇>처럼 상전의 명령을 따르는 행동을 하다가 경애로부터 <점원 같은 인사>를 한다고 편잔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브닝 드레스>에 <에나멜 구두>를 신은 화려한 <본 바탕의 양장> 미인 경애와 나란히 앉아 <하나 밖에 없는 왜사적삼>을 걸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눈썹에 하아얹게 이슬> 맺히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 궁핍에서 오는 열등감과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은 때때로 자기 비하감으로 연결된다. 서울의 밤하늘을 내려다 보며 암흑 속에 반짝거리는 무수한 빛에 비교하여 자신을 <인생의 패잔자>라고 자탄하는가 하면, <한 개 부유처럼 힘없고 슬픈 존재>와 같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다른 한편 부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 비하감은 경애와 가까워지는 민수에 대한 질투심으로 전환된다. 민수네집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조만호에게 간청하는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키는 커녕 오히려 민수와 점점 멀어지고, 민수가 자기를 버리고 경애와 혼인한다는 소식을 들은 정순은 <송곳니가 빠드득>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화를 낸다. 민수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민수의 콧잔 등을 냅다 쳐준 듯한 쾌감이 중추신경을 찌르고 지나가는> 통쾌한 감정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의 질곡은 민수에게서도 발견된다. 토지 경매 건 때문에 조만호를 찾아가는 민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끼며 <스스로 조롱하는 비웃음>을 던진다. 또 경애를 구해준 대가로 윤영환이 건네주는 오천원을 호기있게 거절한 이후 생활고에 처하자 <왜 받지 않았나 못생긴 것> 하고 후회한다. 조만호와 정순이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경애와 결혼하기로 정한 민수의 내심도 실은 돈 많은 조만호에 대한 공격심과 돈의 유혹에 넘어간 정순에게 대한 복수심에서 발현된 것이다. 열등감, 자기 비하감, 복수심과 같은 감정의 굴곡은 경제적 궁핍 속에서 시달리던 당대 독자들의 보편적 정서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뒤틀린 감정 기복은 부에 대한 동경과 맞물리면서 당대 독자들의 분열된 내면의식을 반영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정순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 전개는 인물들 간의 직접적인 갈등으로 점철되지 않고 인물들 사이의 욕망이 서로 빗나가는 상황 논리에 이끌리어 있다. 상황적으로는 무언가 사건이 곧 벌어질 것같은 긴박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 간의 욕망이 직접 부딪치지 않고 있다. 인물 간의 욕망이 직접으로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는 생생한 사건이 빠져 있다. 생생한 사건이 빠진 자리에는 우연적인 사건의 개입으로 채워져 있다. 그 동안 「쫄레꽃」이 우연적 사건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구성상의 결함을 자초하였고 또한 현실 인식의 문제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도 여기에 있다. 「쫄레꽃」은 인물들 간의 오해와 농간의 파노라마가 겹쳐지면서 과도한 우연이 개입

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설 구조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또한 현실적 기반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랑만을 택하는 정순은 현실의 원리가 탈색한 공허한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질레꽃」의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상황 논리에 이끌리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함으로써만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욕망의 간접화 현상이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근대 사회의 타락적 특성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양상이다. 정순은 가족의 생계비는 물론 밀린 입원비 때문에 병원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정순은 <경애만큼 아니 경애보다 좀더 부유하고 화려한 배경을 가질 수 있다면> 하고 부자가 되기를 욕망한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는 가난한 정순은 경애가 지닌 부의 화려함과 풍족함을 부러워 하고 이를 욕망함으로써 부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물질에 대해 욕망을 드러내면서도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택하는 정순을 통하여 연애의 삼각관계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으로 드러나지만, 그 선택 갈등의 내면에는 진정한 가치의 추구란 타락한 현실에서 불가능하며 혹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타락한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사랑을 선택하는 정순의 도덕적 미덕을 통하여 가장 고귀한 정신적 가치인 사랑마저도 돈에 의한 교환가치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거부하고, 타락한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순은 물리적 유혹에 강하게 이끌리지만 타락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미덕을 지니고 있다. 정순은 결코 물질적 부와 민수와의 사랑을 저울질해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상하고 친절한 부자 아들 경구의 청혼도 주저없이 거절한다. 정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주의에 맞서서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과 숭고한 미덕을 지켜나

간다. 이 도덕적 우월감은 조만호의 부인이 <자기 이름 뒤에 씨를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자존심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존심은 <얼굴을 찌푸릴 때마다 보통사람보다 더 크고 높은 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조만호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진다. 돈의 위력으로 성적 욕구를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조만호에 대한 희화적 인물 묘사는 분명 <여성미의 절정>을 갖춘 정순의 청순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대립된 것이다. 가난-선-미 / 부-악-추라는 이분법적 대립구조에서 전자에 대한 긍정과 후자에 대한 부정은 선한 인물에 의해 부자이지만 추하고 악한 인물이 야유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도덕한 부자들의 게으르고 탐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비난은 물신주의적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아울러 물질의 세계보다 더 높은 정신 세계를 강조한다.

정신 세계에 사는 정순의 도덕적 미덕은 <쨍레꽃 앞에 와서 비로소 정순의 값 높은 영혼을 보는> 경애의 눈을 통하여 <정신적 승리>로 승화된다. <보아주는 이가 없어도 홀로 피어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향기를 보내 주는 쨍레꽃>은 열등감과 자기 비하감을 도덕적 우월감으로 보상해 주는 상징물이다.

창너머 입도 떠러지고 가지도 시드러진 쨍레 덩불 위에는 때 아닌 쨍레꽃이 송이송이, 날르고 잇스니 그것은 겨울의 선물, 흰 눈이다. 가지 우에 나뭇기는 눈송! 다음 송이가 와서 안즐 동안 자취업시 스러지는 눈송이! 그것은 하염업시 헛터지는 쨍레꽃 화변의 하나하나이다. 아니 덧업는 행복 (...중략...) 정순의 가슴을 기리 가지처럼 활취여 주고 간 민수의 사랑이 아닐가? (271면)

결말에서 경구와의 결합 가능성을 남겨 놓음으로써 정순의 고결한 정신에 대한 보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타협적 전망은 물질적 논리에 지배 당하는 현실의 뒤틀린 가치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화해를 통하여, 척박한 현실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위안을 준다.

독자들은 안정순과 같이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식의 통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독자들의 감동은 정순의 이야기가 바로 부로부터 소외된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강한 흡입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랑에는 패배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간직한 정순의 도덕적 승리는 도덕적 우월감만이 현실의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에서 피로해진 독자들의 심리적 평정을 유도한다.

4. 도덕적 우월감, 전망 없는 현실 살아가기의 또 다른 방식

「찔레꽃」이 당대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이유는 이와 같이 타락한 가치가 지배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숭고한 사랑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타락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즉 절망적인 현실적 삶의 범주를 넘어서 사랑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꿈의 세계나 이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전망없는 현실로부터 벗어난 듯한 환상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숭고한 사랑’의 힘에 대한 강조는 비단 「찔레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1930년대에 상당 정도 담론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숭고한 종교적 사랑을 강조하였던 이광수의 「사랑」이나 박계주의 「순애보」 역시 「찔레꽃」 못지 않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점은 이를 입증해 준다. 또한 “진실한 사랑이란 방탕과 타락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사업에 다시 없는 광명과 행복을 던져 주는 것”¹¹⁾이라는 안희남의 주장이나, “연애란 숭고한 인간성의 발휘로서 남을 위하여 자기를 죽여 가지고 남을 아울러 살리는 짓”¹²⁾이라는 김기석의 주장, 그리고 “나를

11) 안희남, 「청춘과 연애」(『신여성』, 1933. 5).

12) 김기석, 「연애와 윤리」(『사해공론』, 1938. 8).

위하여 라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그를 위하는 사랑”을 강조하였던 이광수의 주장¹³⁾ 등이 반복되어 발표되었다는 사실도 ‘숭고한 사랑’의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쫄레꽃」이 1930년대 대중 독자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소설 속의 상황이 당대의 독자들이 처한 사회 상황은 물론 심리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 있다. 즉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경제적인 수탈을 효과적으로 감행하기 위해 화폐정리 사업, 산미증산 계획,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조선의 경제 체제를 식민지 자본주의로 급격하게 변형시켰다. 우리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수탈의 과정이 심화되었던 1930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적인 부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점차 ‘돈’이 중요해지지만, 식민지 치하의 경제적 부는 일제나 그 동조자들의 독점물일 뿐 당대 조선의 대다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절대적 빈궁에 처하였다. 극히 소수만이 부를 소유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의 소유 과정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면서 빈민화 문제, 실업문제, 농촌문제 등이 사회 전반의 이슈로 부각되었다.

심각한 불경기와 생활난은 날로 심각하여 가두에 헤메이는 실직군(失職軍)은 날이 갈수록 늘어갈 뿐인데 그나마 녀름 동안은 생활도 간편한 점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교적 쉽게 지났다 하여도 압력으로 날이 시늘히어지면서부터 일정한 직업을 못가진 실직군에게는 일층 생활의 위험을 맞게 되어 근일 황금정(黃金町) 경성부 직업소개소에는 남녀의 무직자들이 행렬을 지어 차저 들고 있다.……¹⁴⁾

세민의 궁핍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식량이 다 떨어져 먹을래야 먹을 것이 없어 부근 유산자의 문을 두드려 밥찌꺼기를 구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초근목피로 노명(露命)을 이어가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영양부족에 빠져 정력감퇴

13) 이광수, 「自序」, 『이광수 전집』 10권(삼중당, 1971), p.526.

14) 「불경기! 생활난! - 압당한 실직자의 행렬」(『중앙일보』, 1930.9.10).

하고 안면창백하게 되고 사선(死線)을 방황하게 되어 염세의 극에 빠져 자살한 자 1931년에 18명, 금년(1932년) 1월부터 4월까지 6명, 합계 24명에 달하고15)

직업이 없는 실업자가 경성 인구의 80%에 달하였던 1930년대 현실에서 당대 독자 대부분은 저소득층이거나 도시 빈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인용문에서 보듯이 1930년대의 현실적 토대는 궁핍과 굶주림으로 점철되는 암울한 상태였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에 처한 당대 독자들은 일제에 아부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만이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난에 허덕여야 하는 타락한 현실의 질서를 부정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으면서도 부가 가져다 주는 풍요로운 삶에 대해 동경을 버리지 못하는 모순적인 갈등에 휩싸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당대 독자 대부분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경제적 황포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질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에 이끌리는 분열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자명하다.

인생의 행복은 진실로 한떨기 쫄레꽃과 같습니다. 그 압히고 교만한 가지 위에 나뭇기는 꽃!

그것은 언제나 수고와 피와 땀을 요구하고 잇는 감비싼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대가를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것은 왕왕이 쓸쓸한 빈가지 뿐일 때가 만흠에라! 참으로 꺾기 어려운 쫄레꽃!

소설 쫄레꽃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꽃과 가티 향기롭고 달콤한 사랑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로운 가지 때문에 울지 안흐면 안되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인간은 빵으로 산다. 그러나 사랑으로 산다. 어느 말이 참이겠습니까? 작자

15) 全北警察部, 『細民の生活狀態調査』 중 「生活困難ノ爲細民ニシテ自殺ハハ餓死セル者ノ狀態」, 1932(강만길, 『일제하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1987, p.113에서 재인용).

는 독자 여러분을 향하여 평범한 이 한마디의 설문을 드리고 싶습니다.¹⁶⁾

김말봉이 「쫄레꽃」을 신문에 연재하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화두처럼 던진 이 글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분열된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대 독자들의 감정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뺨>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현실에서 <뺨>보다 소중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언제나 수고와 피와 땀>이 요구된다는 김말봉의 지적은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는 한편 이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부하지도 못하는 당대 독자들에게 전적으로 공감을 주었을 것이다. <뺨>과 <사랑>의 논리라는 이중구조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의 아들>의 심정은 곧 당대 독자들이 처한 현실 상황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전망 없는 현실에 대해 체념을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의 질서를 뛰어넘는 대체물이 필요하다. 그것이 비록 리얼리즘에서 요구하는 타락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치열한 대응 방식이 아니라 현실 은폐나 도피적인 수단이라 할지라도 독자들은 그것을 통해 얼마쯤 현실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질서가 워낙 견고하여 현실에서 받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현실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꿈과 환상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원망(願望)이 사회적 동념이나 현실적 조건에 방해 받지 않고 실현되기를 바라게 마련인 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 환상이나 꿈의 세계에라도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쫄레꽃」은 타락한 가치가 지배하는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나 도덕적 숭고함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당대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 소외감을 위로해 주고 나아가 현실에서 초월한 듯한 정신적 충족감을

16) 김말봉, 「작가의 말」, 『원본신문연재소설전집』(깊은샘, 1990), p.211.

준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압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탱할 힘을 확보하지 못한 전망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잠시나마 눈을 감게 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있다. 대중 독자들은 현실적으로 진정한 가치의 실현이 불가능을 하다는 것을 잘 알고 또한 진정한 가치의 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갖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여성 인물의 도덕적 숭고함은 대중 독자들의 현실 소외감을 위로해 주고 또한 진정한 가치에 대한 아쉬움을 충족시켜준은 물론 타락한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의 논리를 뛰어넘는 도덕적 우월감과 정신적 고양감을 맛보게 해준다.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는 정순의 위대성은 바로 남성 중심적 위계 질서에 대한 반어적 전도를 통하여 정치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으로 변형시키고, 인류 역사의 사소한 구속을 뛰어넘어 풍요로운 정신 지평으로 고양시키는 힘을 지니는 데 있다.¹⁷⁾ 도덕적 미덕의 상징인 '찹쌀떡 향기'는 물질적인 현실을 뛰어넘어 이상적 가치에 접근해 있는 듯한 초월의식을 갖게 해준다.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근대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다수 독자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길은 도덕적 우월감과 자존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정순을 열악한 현실 조건에서도 돈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고결한 여성으로 남겨 놓음으로써 「찹쌀떡」은 전망 없는 삶의 범주를 벗어나 꿈의 세계를 보여준다. 현실의 질서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낭만적 사랑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애소설을 비극적 낭만주의 소설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애소설은 여성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성의 순결을 짓밟는 악을 몰아내고 정의와 선을 실현하는 멜로드라마적 플롯을 통하여 여성의 순정으로서 사회적 질서를 정화하려는 독자들의 열망을 보상한다.¹⁸⁾ 자

17) R.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200.

18) Earl F. Bargainnier, "Melodrama as Formula", *Journal of Popular Culture*, Vol. IX.(Winter. 1975), p.726.

아와 세계가 쉽게 화합하는 결말 구조는 현실 사회에 통용되는 질서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염원을 보상한다. 이러한 보상이 크면 클수록 독자들은 더욱 더 연애소설에 탐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애소설로 향하는 독자들의 열렬한 관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연애소설에서 일상 생활에서는 배출구를 찾을 수 없는 평범한 독자들의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고 나아가 현실의 지배적 힘을 초월하도록 자극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연애소설에서 독자들은 구속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상에 접근해 있는 듯한 초월적인 위안을 받게 된다. 그것이 비록 현실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서 현실적인 리얼리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억압적인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은 소설 속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환상이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그 환상적 세계 속에서 현실로부터 받은 자신들의 상처가 위안받기를 기원하게 된다. 독자들은 가난하지만 도덕적으로 숭고한 여성인물을 통해서 현실적인 소외나 가난 짙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위안을 받으며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연애소설은 현실에서 왜소해진 대중 독자들을 위로하거나 도덕적으로 보상하여 주고 현실에서 소외된 독자들의 소외감이나 불안의식을 위로해 준다. 따라서 연애소설은 현실에서 갖는 억압된 불만을 상상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연애소설이 대중 독자들에게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학 장르인 데도 불구하고 리얼리즘 소설과 다른 방식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문학 연구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에 대한 문체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애소설이 그 동안 문학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원인은 바로 현실에 대해 치열한 대응 방식이 아닌 의사 초월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흐핀에 따르면 소설이란 본래 반규범적이며 유연한 장르로서 현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상이한 질료를 받아들임으로써 다성성을 추구하는 잡종의 문학이다. 그러므로 치열한 대응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소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리얼리즘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경직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직된 태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늘에 이르러 점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잣대로 대중문학을 분석할 경우 '통속적이다'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고는 「쫄레꽃」으로 대표되는 연애소설이 대중소설의 하위 장르임을 염두에 두어 리얼리즘과는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대중소설은 독자를 긴장하게 만들어야 진정한 문학적이고 진지한 문학의 정전이라는 식의 목적론을 강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문학이 주는 쾌락적인 면을 추구하는 수단론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즉 대중소설은 권태로운 근대 사회의 일상적 삶에서 벗어나 흥미있고 강렬한 체험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대중들의 원망(願望)을 충족시켜 주고 아울러 대중들을 위협하는 좌절감, 박탈감, 압박감 등을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대중들의 환상을 만족시켜 준다. 따라서 본고에서 연애소설에 대한 분석 역시 이러한 대중소설의 특성에 맞추어서 당대의 대중 독자들의 감정구조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한 소설의 구조가 대중 독자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쫄레꽃」은 타락한 가치가 통용되는 일제 하 근대 사회에서 사랑이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오로지 현실을 초월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한 사랑만을 추구하는 여성인물의 도덕적 미덕을 통하여 권력과 돈과 명예를 기반으로 삼아 저급한 성적 욕망과 타락한 물질주의를 추종하는 남성을 비판하고 있다. 여성의 도덕적 미덕에 대한 찬양은 소설 속의 사건들을 뒤튼린 오해와 농간의 연속적 전개라는 한계점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러

나 도덕적 숭고함은 곧 정신적 가치인 사랑마저도 돈의 교환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자본주의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의 척도가 되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의 또 다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쫄레꽃」은 타락한 가치가 지배하는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나 도덕적 숭고함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당대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물질적 소외감과 현실적 패배감을 위로해 주고 나아가 현실에서 초월한 듯한 정신적 충족감을 준다.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의 미덕은 바로 남성 중심적 위계 질서에 대한 반어적 전도를 통하여 현실의 구속력을 뛰어넘어 풍요로운 정신 세계로 고양시키는 힘을 지닌다.

독자들은 이러한 연애소설을 읽음으로 해서 일상 생활에서는 배출구를 찾을 수 없는 억눌린 감정을 분출할 수 있고, 나아가 현실의 지배적 힘을 초월하도록 자극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독자들은 구속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상에 접근해 있는 듯한 초월적인 위안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연애소설은 현실에서 왜소해진 대중 독자들을 위로하거나 도덕적으로 보상하여 주고 현실에서 소외된 독자들의 소외감이나 불안의식을 위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연애소설은 리얼리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아울러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현실에 대한 인식 지평을 넓혀 주고 있다. 그러나 분명 현실에 대한 운명론적 순응과 도피적인 체념을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리얼리즘에서 연애소설을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점을 조명한 것이다. 그러나 도피란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닌 것만은 아니다. 도피는 역설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현실과의 화해의 몸짓이며, 모순적인 현실의 질서가 재생산되기를 거부하는 또 다른 현실 대응 방식이 된다.

김말봉은 「통속소설 작가」임을 표명한 최초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쫄레꽃」을 비롯한 「밀림」 등 다른 소설들도 「통속소설을 쓰겠다」는 작가의 소신이 담겨진 작품들이다. 따라서 김말봉의 작품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함께 병행될 때 김말봉 소설이 갖는 대중소설로서의 특성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만길, 『일제하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1987.
- 임 화, 「통속소설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 최원식, 「장한몽과 위안으로서의 문학」,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 R.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 R. 윌리엄스, 이일환 역, 『이념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93.
- A. Brooker, "An Approach to Melodramatic Fiction: Goodness and Energy in the Novels of Dickens, Collins and Reade", Genre. Vol.11. No.1. Spring. 1978.
- Marie H. Faillie, "Love Triangle",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Jean Charles Seigneuret (ed), Greenwood Press. 1988.
- Earl F. Bargainnier, "Melodrama as Formula", Journal of Popular Culture, Vol. IX, Winter. 1975.
- Catherine Belsey, Desire : Love Stories in Western Culture, Blackwell : Oxford, 1994.
- Jane Miller, Seductions : Studies in Reading and Culture, Vorago Press : London, 1990.

